





부산 해운대 the# 센텀파크

집 안에 공원이 펼쳐진 살기 좋은 아파트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 같은 아파트. 부산 해운대 the# 센텀파크에 사는 권경 주부는 요즘 사는 맛과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바로 the# 센텀파크의 매력에 푹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뒤로는 장산, 앞으로는 수영강이 펼쳐진 곳에 위치한 해운대 the# 센텀파크에 살고 있는 권경 입주인으로부터 the# 센텀파크의 진수를 들어본다.

글 권경 부산 해운대 the# 센텀파크 입주인

'초고층이라서 다른 아파트의 조망을 가리지는 않을까?' '51층이라는데, 높은 층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너무 높아서 무섭지 않을까?'

처음 해운대 the# 센텀파크로 이사했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이런 우려 섞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튼튼하게 지었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사실 저도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런 말들은 모두 기우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튼튼한 만큼,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실내는 전혀 흔들림 없이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높은 만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장점도 있구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제 친구도 저희 집에 놀러와 보고는 오히려 한쪽의 그림 같은 거실 밖 풍경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웃 집을 방문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아파트 단지가 타워형으로 배치되어 어느 집에서나 조망을 즐길 수 있어요. 뒤로는 장산, 앞으로는 수영강이 펼쳐져 있어 풍수지리상 뛰어난 배산임수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조망이 뛰어난 이유 중 하나겠지요.

자연과 함께하는 공원 같은 아파트, the# 센텀파크. 이제부터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산책을 즐겨보시겠어요?

POPULAR APARTMENT





고급 노블리티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갖춘 아파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이 1.2km의 조깅 트랙을 아이들과 함께 달리거나, 요즘 같은 무더위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저녁을 먹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산책을 하면 정말 편안한 휴식이 된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럴 때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끼게 된답니다. 또 그만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도 더욱 좋고 쾌적한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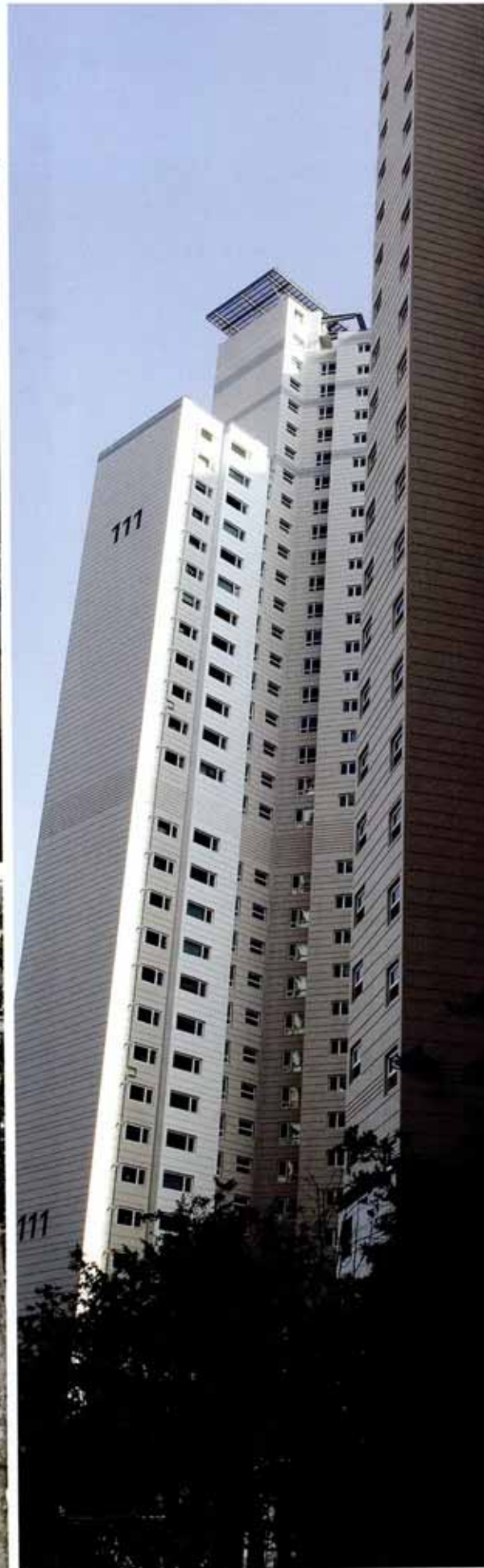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대신 지하 1~3층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두 군데에 크게 뚫려 있는 선큰(Sunken)으로 햇빛과 바람이 들어와 주차장이 무섭지 않고 안전해서, 딸 아이의 늦은 귀가에도 안심이 된답니다.

웰빙의 기본은 실내 공기의 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단지는 공사하면서 직접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한 것은 기본이고요. 보다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기와 베이크아웃(Bake-Out)도 여러 번 했다고 하네요. 역시 포스코건설은 믿음이 가요.

언뜻 보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럽고 독특한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제가 사는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이 아니랍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의 장점을 모두 지닌 그런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죠. 고급 노블리티를 지향하면서도 일반 아파트처럼 쾌적하고 넓은 단지 내 공원을 지닌 거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와인잔을 기울일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와 같은 곳. 우리 집은 어느새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바(Bar)가 되어버렸답니다. 근사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보다 더 좋은 스카이라운지가 또 어디 있을까요.

POPULAR APARTMENT





부산의 타워팰리스, the# 센텀파크

무엇보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밤이 되면 옥상에서 조명이 밝게 빛나고, 이 모습은 수영강에 한 폭의 그림과 같답니다. 먼 곳에서도 우리 아파트는 눈에 잘 띄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어느새 부산의 명물이 된 거 같아요.

지난 5월인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니다. 저 멀리서 센텀파크가 보이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파트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는 옥외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저기 포스코 아파트에도 그게 있다던데' '우와~ 저기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제가 바로 그곳에 산다고 자랑하고 싶은 걸 참느라 힘 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웃으며 마음속으로 뿌듯해했죠. 그 순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타워팰리스가 있다면, 부산에는 센텀파크가 있답니다.

센텀시티의 미래지향적 잠재가치 '무궁무진'

센텀시티는 부산시에서 컨벤션, 영상 IT 산업단지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8년 단지 주변으로는 곧 해운대 구청을 비롯해 롯데·현대백화점, 동양 최대 규모의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그리고 백스코와 APEC 나루공원이 가까이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전용 상영관과 수변 공원도 조만간 들어선다고 하네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만 다니는 센텀초등학교가 2단지 옆에 바로 붙어 있고, 길 건너에 센텀중학교도 있어서 아이들 교육 걱정은 없어요. 센텀시티 일대가 개발되면 우리 아파트의 미래 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니 더욱 뿌듯하답니다. ☺